Yeosu
Web Contents

2024년 04월 29일 11시 37분

목차

목차 2
여수핫뉴스 - 전체 3
여수시,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대전환 이끈다 3

여수시,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대전환 이끈다

2024.03.19 조회수 248 담당부서 수산경영과 담당자 정중철 연락처 061-659-3906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 촉진 확대
- AI 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첨단 양식산업 육성
-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수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미래형 수산업으로의 대전환에 나섰다.

기후변화와 일본 원전오염수 방출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는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를 위해 ▲안전성 확보를 통한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 ▲AI도입으로 경쟁력 있는 첨단 양식산업 육성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산업은 과거로부터 여수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국제 해양관광 휴양도시, 남해안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는 여수로써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시가 이번 대전환을 통해 예전 여수 수산업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 촉진 확대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에 따른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와 수산산업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자체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한다.

내년 말까지 자체 예산 54억 원을 투입해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건립, 이를 통한 신속한 검사로 여수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해수 방사능 감시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 1억 원을 들여 어업지도선에 실시간 해수 방사능 측정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해수 방사능 측정 결과는 주 1회 시 홈페이지와 주요 전자게시대(459개소)에 공개해 지역 수산물 소비 불안감 해소에 힘쓰고 있다.

시는 또,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132억 원을 투입, 수산물 양륙과 선별, 위판, 배송 등 전 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위판장 2개소를 올해 안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국 40%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홍합양식장에 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부착기와 인증 부표 보급 등 양식수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비자 불안감 해소와 여수수산물 이미지 제고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 촉진 확대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수산물 사주기 운동 등 판촉 행사와 ▲소가구를 위한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및 소포장재 지원 등을 통해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AI 도입을 통한 경쟁력 있는 미래형 첨단 양식산업 육성
시의 미래 첨단 양식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걸음도 바쁘다.
특히,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AI를 해상 양식장에도 접목해 전국 최초 해상 ICT융합 스마트 양식모델 구현을 통한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이며, 시는 올해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초 열리는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

또한, 2026년까지는 여수 특성에 맞는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TESTBED)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TESTBED)에는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에서의 탈피 ▲인위적 수온조절과 자동사료급이 ▲환경측정 및 자동제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술집약적 첨단 스마트 친환경 양식 등의 내용이 담긴다.

시는 이 같은 체질개선을 통해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 예방과 ▲생산기간 단축에 따른 어가경영 안정화 ▲경쟁력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05억 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정치망어업 감척사업과 바다정원화 및 인공어초 관리사업,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등 건강하고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54억 원을 투입해 양식재해보험 확대 및 재해예방형 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 및 양식자동화장비 지원을 통해 고소득 지역특화 품종을 발굴 육성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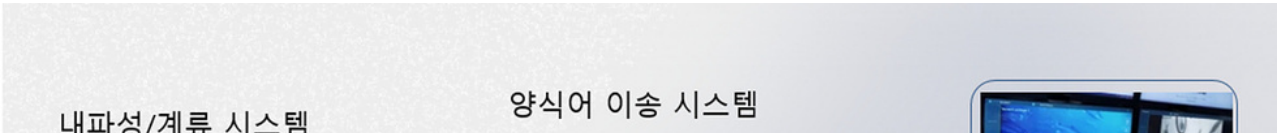
■ 어촌 개방성 확대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
최근 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족한 노동력이 수산업 침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8억 원을 투입해 어촌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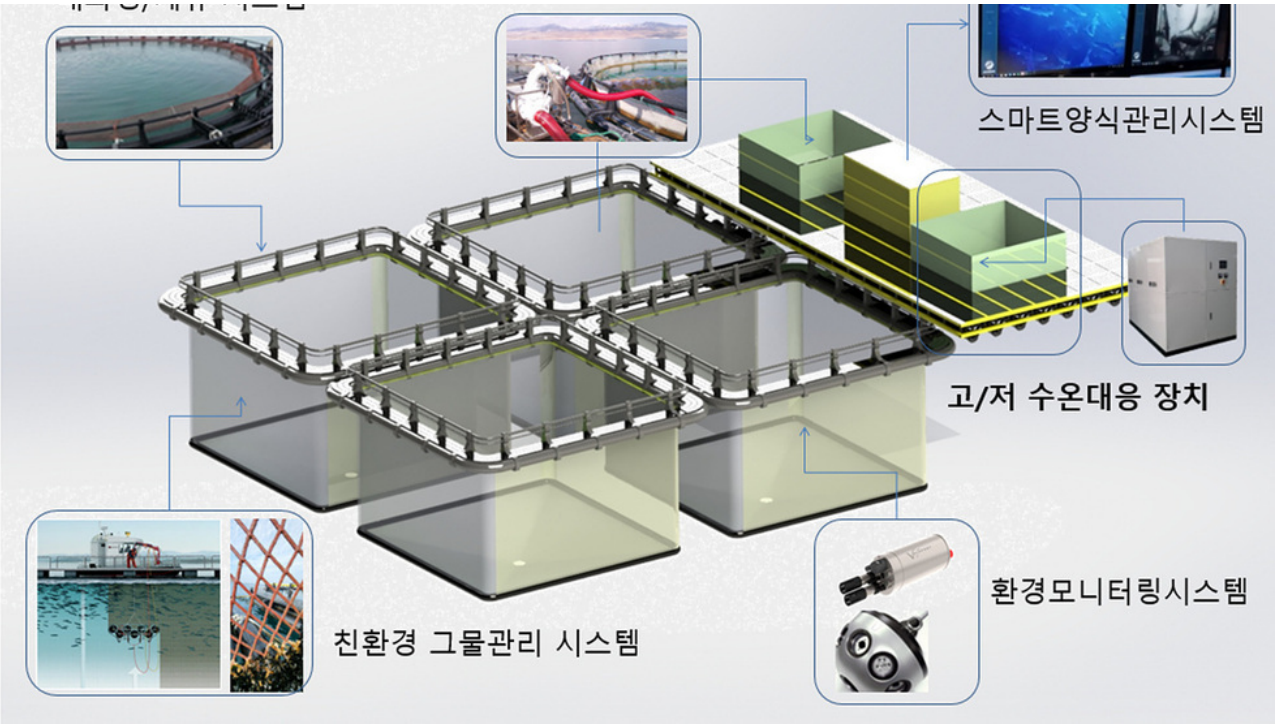
주요 내용은 ▲어업인 소득보전과 정착지원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 3종 사업과 ▲어선·양식장 임대사업, ▲어촌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귀어귀촌 지원사업,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어촌노동력 해소를 위한 자동화기기 지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이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되는 우수어촌계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은 어촌진입 장벽 완화와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많은 신규 어촌계원을 유치한 우수어촌계에는 1억 원의 필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올해 시범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필요 업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수산업 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2030 수산업·어촌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미래형 해상 어류양식 모델(TESTBED) 조감도.jpg (49 hit/ 301.6 KB) 미리보기

수산물안전센터 조감투시도.jpg (49 hit/ 282.1 KB) 미리보기

이전글
여수시, 1조 4천억 규모 '묘도 LNG 터미널 사업'…

다음글
정기명 여수시장, 직원들과 시정발전 소통 강화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여수시